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안 명 희†

서강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 학령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신의 부정적 정서와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총 569쌍의 자료에 근거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어머니의 우울증상과 상태불안을 가중시켰다. 둘째,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우울과 불안을 매개로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증가시켰다. 이로써 아동 상담 장면에서 관찰되는 부모 자신의 부정적 대상관계표상이 역기능적 부모-자녀 관계로 전이되는 과정에 부모의 부정적 정서가 유의미하게 관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자녀의 공격성, 주의집중문제 그리고 과잉행동으로 평가한 외현화 문제행동과 우울, 불안과 자기 부적절감으로 평가한 내면화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어머니 자신의 우울과 불안 그리고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가중시켜 자녀의 외현화, 내면화 문제행동을 심화하는 매개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과정에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불안정 애착과 부정적 정서로 측정된 어머니의 대인관계 양상 및 심리적 부적응이 학령기 자녀에 대한 심리적 괴롭힘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요인임도 확인되었다.

주요어 : 불안정 성인애착, 우울, 불안, 심리적 통제, 아동 문제행동

† 교신저자: 안명희,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Tel: 02-705-8837, E-mail: christine@sogang.ac.kr

아동 상담 장면에서는 부모의 성격특성과 정서증상이 자녀에 대한 양육적 민감성을 저해하고 아동문제에 원인이 되는 경우를 관찰하게 된다. 때문에 의뢰 문제의 정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부모-자녀 관계의 심리적 역동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양육의 질과 정신병리의 관련성은 대부분의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특히 대상관계 이론을 비롯한 정신역동적 이론의 핵심적 가정(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McWilliams, 2004; Wachtel, 1994)이기도 하다. 부모-자녀 관계나 아동정신건강 관련 경험연구 결과 역시 친밀한 관계적 맥락에서 드러나는 부모의 역기능적 대인 관계 양상과 부모의 부정적 정서증상에 주목해 왔다(Dix, 1991;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Shaver & Mikulincer, 2002). 그리고 최근 들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모 민감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자 자녀 부적응의 원인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Barber & Harmon, 2002; 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Goossens, 2005). 하지만 부모 민감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심리적 과정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민감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인 부모의 불안정 애착이 어떤 구체적 경로를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녀의 문제행동

애착은 개인이 친밀한 대인 관계에서 갖게 되는 자기와 대상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에 대

한 마음의 표상이다. 또한 애착은 이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표상과 관련된 사고, 정서 및 대처행동을 주도하는 내적 작동모델이라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모의 애착은 자녀의 정서적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부모 민감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익히 보고된다(Belsky, 1984; Kobak, 1999).

초기 애착 연구는 실험장면에서 주로 관찰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와 유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면접 자료를 통해 부모들의 원부모와의 애착 관련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를 파악하는 성인애착 연구로 이어졌다. 성인애착 연구는 1980년 중반부터 남녀 간의 친밀한 애정적 관계에서 초기 부모-자녀 애착 관계 양상이 재현되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원부모와의 초기 애착경험에 대한 회상 자료보다는 현재의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평가한 자기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애착 유형을 추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결과를 내놓게 되었다(Shaver & Mikulincer, 2002; Shaver, Belsky, & Brennan, 2000). 이들 성인애착 관련 연구는 성인애착 유형을 개인이 현재의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경험하는 애착 관련 사고와 정서의 개인차를 자기보고로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친밀감의 추구, 분리와 거부에 대한 불안, 그리고 거부와 버림받음의 고통과 분노에 대한 각성 수준이 성인애착의 유형별 차이의 기준이 된다(Cassidy & Shaver, 2008). 이때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애착 관련 사고에 대한 집착의 정도를 불안애착으로, 친밀감에 대한 회피, 애착욕구충족의 대상으로써 타인의 존재와 필요에 대한 부인의 정도를 회피애착으로 분류 평가한다(Mikulincer, Shaver, Cassidy, &

Berant, 2009; Mikulincer & Shaver, 2008). 이처럼 성인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평가하는 경우, 안정애착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낮고, 불안정 애착은 불안 혹은 회피애착 수준이 높거나 둘 다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불안정 성인애착의 하위유형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애착 관련된 사고와 정서에 대한 활성화(Fonagy와, 2002; Shaver & Mikulincer, 2002)와 각성수준 그리고 방어적 대처양식(Cassidy & Berlin, 1994; Cassidy & Kobak, 1988)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불안애착이 높은 경우, 관계에 대한 집착과 몰입 그리고 친밀한 대상과의 근접성 추구 경향이 높다. 하지만 회피애착이 높은 경우 애착 관련 사고나 정서에 과도하게 방어적이다. 이때문에 친밀감, 자기개방, 자신의 정서적 취약성과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 표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의존을 자제하는 성향을 보인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차이는 대학생 대상자로 한 인지과제 수행능력 실험에서도 드러난다. 과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불안애착이 높은 피험자는 이성과의 고통스러운 이별경험에 대한 회상 즉, 애착 관련 정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과제수행의 어려움을 보인다. 하지만 회피애착이 높은 피험자들은 집중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추가과제가 제시되는 상황에서야 수행능력의 저하를 보이고 심하게 동요하며 강한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나타낸다(Mikulincer와, 2009).

하지만 불안정 성인애착은 하위유형에 상관없이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에 대한 조절능력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자녀나 배우자가 자신에 갖는 애정에 확신이 적어지

는 상황에서 애착 관련된 사고와 감정이 쉽게 촉발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불안애착이 높은 경우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더욱 비현실적으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는 애착 대상으로써 상대에 대한 집착을 가중시킨다. 회피애착이 높은 경우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애착 관련 부정적 사고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오는 내적 스트레스가 겹쳐 더욱 감정적으로 활성화되어있을 수 있다(Shaver & Mikulincer, 2002). 그리고 애착관련 내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억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어 오히려 더 공격적인 대처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부모의 화 혹은 공격성은 안정애착을 보이는 부모가 동일한 상황에서 표현하는 공격성 혹은 분노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Bowlby, 1973; Shaver & Mikulincer, 2011 재인용). 부모-자녀 관계를 회복하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나오는 현실적이고 상황적 분노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정 성인애착의 하위 유형별 차이가 짜증, 적개심, 분노, 공격성 등의 애착관련 부정적 사고와 정서의 활성화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는 확실치 않다.

한편 부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관련 선행연구들이 주로 통제적 혹은 방임적 양육이 심각하거나 부모의 부정적 정서증상이 심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다. 따라서 정상집단의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애착관련 정서에 대한 활성화 혹은 각성의 수준과 방어적 대처의 차이가 양육태도의 차이로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종합하면, 불안정 성인애착은 하위유형에 따라 애착관련 정서조율능력과 방어적 대처양식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회피유형도 불안애착 못지 않게 애착관련 정서에 대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이며 다만 이를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거나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방어적 대처를 하는 경향이 많을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정서 체험이 가중될 것으로 가정했다. 둘째, 불안애착이 높은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 집착하고 회피애착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무시하기 어려울 때 과도하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 역시 모두 가중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동기 문제행동은 그 위험 요인이 다양하고 불안과 우울 등 다양한 증상이 공병을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정신건강이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불안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정상 아동의 부모들에 비해 애정은 적고 통제는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Treffers & Silverman, 2001; Wood, Mcleod, Sigman, Hwang, Chu, 2003). 한편 애착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들은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이 높아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신의진, 이경숙, 정석진, 홍현주, 2003). 따라서 아동 문제행동의 원인을 부모의 성격특성 혹은 양육태도로 귀인하는 경우, 애정과 수용, 행동적 혹은 심리적 통제가 적절하지 않은 부모들의 자녀가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부모들의 성격특성, 정서적 요인,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적 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을

총체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적다. 따라서 관련 요인간의 구체적인 영향력의 방향성, 그리고, 부모의 부적응 양상이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세대 간 전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부모 민감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자녀 문제행동의 원인인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대처양식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

부모의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 증상은 자녀의 심리적 필요에 대한 민감성을 저해하여 애정적 거부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부모의 부정적 정서증상이 심각한 경우 자녀에 대한 공격성, 정서적 무관심 혹은 지나친 집착과 의존성이 높아지며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Lovejoy 외, 2000). 부모의 우울한 정서는 순응적인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자녀의 문제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보인다(Downey & Coyne, 1990; Trentacosra & Shaw, 2008). 어머니의 불안이 증가할수록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가중된다고 알려져 있다(Treffers & Silverman, 2001; Woods외, 2003). 분리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를 가까이 두려는 경향과 과도하게 자녀와의 관계에 몰입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리고 과도하게 예민하고 불안하여 걱정 근심이 많은 부모는 침해적 양육태도를 보이며 이들의 자녀 역시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고한다(Woods, 2006; Woods 외, 2003). 한편 우울한 부모의 자녀가 일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우울할 가능성이 높고 불안한 아동의 부모는 정상 아동의 부모에 비해 높은 불안을 호소한다(Rapee & Spence,

2004). 따라서 임상집단의 경우, 부모의 부정적 정서는 자녀에게로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정서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자녀에 대한 양육적 태도로 드러나는 과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불안정 애착이 높아져 부모의 우울과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을 부모의 권위나 애착육구 충족의 걸림돌로 경험하고 이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취하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우울과 불안이 가중되는 경우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정 애착 양상이 자녀와의 부정적 심리적 역동으로 전이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우울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적 증상과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다. 특히 애착불안과 부정적인 정서증상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Cassidy & Shaver, 2008; Mikulincer 외, 2009; Wei, Vogel, Ku, & Zakalik,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유의미하게 관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 태도는 아동의 다양한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arber, 2002). 부모의 과도한 행동 통제는 공격적 행동, 약물사용, 품행장애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행동, 또래 관계에서의 거부와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Olsen, Yang, Craig, Robinson, Peixia, Nelson, Nelson, Jin, Shenghua, & Wo, 2002)을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이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경우 불안, 우울, 외로움, 그리고 혼란과 같은 내면화 문

제행동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는 부모 본위의 기분이나 기준에 따라 자녀를 억박지르며 막연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심리적 괴롭힘 혹은 심리적 공격 행동이다. 물리적 혹은 신체적 행동통제와 달리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과정에 동반되는 정서나 의사소통 방법으로 표현되기 쉽다. 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경우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의 경험이 될 위험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우울, 불안, 정서적 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자율성과 안정적인 자기상의 발전을 저해하며 심리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거론된다(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Sorensens, 2008; Barber & Harmon, 2002).

하지만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모 심리적 통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Sigel, McGillicuddy-DeLisi, & Goodnow, 1992)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다. 또한 대부분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Soenens, 2008)과의 관련성을 보고한다. 아동기 문제행동은 공병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특정 문제행동을 단편적으로 검증한 경우(Barber, 2002)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우울한 부모가 자녀에 대해 더 공격적이고 무관심하며 불안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집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Woods, 2006; Woods 외, 2003). 따라서 부모의 부정적 정서는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되지만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양육적 돌봄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어떤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어떤 구체적 심리적 특성들이 이와 같은 자녀와의 역기능적 관계양상을 초래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불안정 애착과 부정적 정서증상의 영향을 받고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 정서,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문제행동

부모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자신과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요인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왔다. 애착관련 정서체험과 대처양식에 대한 하위유형별 차이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결론을 내기 어려워 추가적인 탐색을 요한다(Shaver & Mikulincer, 2011). 주로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나 임상수준의 불안정하고 정서 상태를 보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눈에 띈다. 애착과 정

서가 애정적이고 민감한 양육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지만 대상 집단에 따라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불안정 애착과 정서의 개별 단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 되는 경우도 있다(Adam, Gunner, & Tanaka,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부모의 부정적 정서와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불안정애착과 회피애착이 어머니 자신의 부정적 정서와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통해 자녀의 외현화,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경로 구조모형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부모의 양육적 돌봄의 필요가 여전히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탐색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역기능적 대인 관계 양상과 부정적 정서증상이 자녀와의 부정적 심리적 역동과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 얻고자 한다.

이러한 가정들에 의거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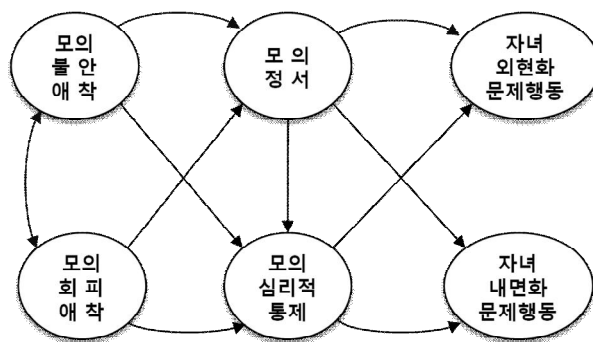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과 경기도 지역 5개 초등학교에서 임의로 표집된 총 569명의 만 10-11세 사이 남(n=296, 52%), 여(n=273, 48%) 4, 5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포함한 총 569(N=569)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동은 담임교사의 지도 하에 각 학급에서 집단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어머니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한 설문지는 아동을 통해 2주에 걸쳐 수거되었다.

측정도구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

Brennan, Clark, Shaver(1998)의 개정판 성인용 친밀한 관계의 애착척도(Encounter in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2002)을 번안하여 어머니의 성인애착을 평가하였다. ECRS-R은 성인애착의 양상을 긴밀한 대인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짜수 문항, 22번 역 채점)과 회피(홀수 문항, 8개의 역채점 문항 포함)수준을 각각 18 문항으로 평가하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Likert-type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 애착과 회피애착 문항의 총점을 각각 연속 변인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본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불안과 회피가 각각 .881과 .773이었다.

모의 정서

불안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지표 중 불안은 Spielberger(1970)가 개발한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김청택(1978)이 번안한 한국어판상태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TAI는 Likert-type 4점 척도로 측정되며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역채점 문항을 포함한 총점이 20점~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는 .901이었다.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이영호와 송종용(1991)에 의해 번역된 한국판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총 21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913이었다.

모의 심리적 통제

모의 심리적 통제는 Barber(1996)의 청소년용 부모 심리통제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 Barber, 1996) 16문항에 Olsen(Olsen 외, 2002)의 2문항을 추가하여 완성한 아동용 부모심리적 통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들은 연구자가 학령기 아동에게 적합하게 번역, 역 번역한 후 아동학과 심리학전공 교수 3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고 예비조사를 걸쳐 확정하였다. 본 척도는 3개 하위 요인 각각 6문항을 포함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type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한 것을 뜻한다. 자녀의 언어표현을 제재하고 감정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제재, 잦은 감정기복과 자녀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영하는 인신공격, 그리고 자녀의 잘못을 빌미로 애정철회와 죄책

감을 주는 애정철회를 포함하는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60이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표현제재, 인신공격, 애정철회가 각각 .729, .650과 .608로 나왔다.

자녀의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은 공격성, 과잉행동과 주의집중문제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우울, 불안 그리고 자신감의 저하, 혹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 등을 의미하는 부적절감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측정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성은 박성연(2002)이 신체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성 공격성을 측정한 총 20문항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반응성 공격성 문항은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수하고 만다,” 신체적 공격성은 “나는 다른 아이를 밀치거나 때린다.”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은 “나는 다른 아이를 따돌려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등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임을 뜻한다.

아동의 과잉행동, 주의집중, 우울, 불안, 부적절감은 한국판 아동표준행동진단검사-아동용(KBASC-2, SRP-C(Korean Behavior Assessment Scale for Children-2, Self-Report Questionnaire-Child, 안명희, 2005))의 해당 소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Likert-Type 4점 척도로 측정된 해당 소척도들의 점수는 T 점수로 전환되어 60점 이상인 경우 임상적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T-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과잉행동은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다.”, 주의집중 문제는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한편 내면화 문제행동인 불안은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 자기비하 등을 측정한다. 우울은 “더 이상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다.”, “우울하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한편 부적절감은 “난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의 하위요인별 문항수는 불안과 우울이 각각 13문항이며 과잉행동, 주의집중, 부적절감은 각각 8문항이다. 한편 문제유형의 하위요인별 내적신뢰도는 내면화 문제행동인 우울, 불안, 부적절감이 각각 .809, .866, 그리고 .783 이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인 공격성, 주의집중문제와 과잉행동이 각각 .875, .745와 .740으로 나왔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은 SPSS 17.0을,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 정서와 부모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 방정식은 Amos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카이제곱값, 기초 적합지수 (GFI), 조정 적합지수(AGFI), 비교 적합지수 (CFI), 표준적합지수 (NFI) 및 RMSEA에 의해 평가된다. 카이제곱값은 유의확률이 .05보다 크면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적합지수들은 .90 이상, RMSEA는 .05보다 작으면 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카이제곱값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추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카이제곱값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다른 적합지수들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홍세희, 2000). 본 연구모형에서는 GFI=.941, AGFI=.911, NFI=.933, CFI=.952,

RMSEA=.064으로 적합도 권장 기준치와 비교할 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 과

변수들 간의 관계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포함된 어머니들은 대체로 안정된 애착수준을 보이고 우울과 불안 수준도 낮은 편이다.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 영역 중 표현제제와 애정철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은 대부분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은 안정적인 애착 유형과 양호한 정서 상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 지표인 공격성(M=31.64, SD=8.06)에서 남아(M=32.29, SD=8.35)가 여아(M=30.93, SD=7.69)보다 더 공격적이라 보고($t=2.021, p < .05$)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성별의 차이가 없었기에 모든 분석에서 성별의 차이는 다루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들의 불안애착은 자신의 회피애착, 우울, 불안 그리고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녀가 보고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외현화, 내면화 문제행동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본 자료는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모형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에 대한 부

합도가 표 2에 제시되어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자료와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9, N =569) = 265.289, p=.001, \chi^2/df = 3.358, AGFI=.911, CFI=.952, GFI=.941, NFI=.933, RMSEA=.064$).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구조경로분석 결과가 그림 2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표 2와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불안애착($\beta = .303, t = 5.517, p < .01$)과 회피애착($\beta = .325, t = 5.483, p < .01$)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했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는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beta = .099, t = 1.672, p < .05$)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beta = .088, t = 1.844, p < .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beta = .479, t = 9.066, p < .01$)과 내면화 문제행동($\beta = .398, t = 8.006, p < .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불안애착($\beta = .060, t = 1.608, p > .05$)과 회피애착($\beta = -.006, t = -.104, p > .05$)이 모의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2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채택된 구조모형이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의 변량을 30%,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2%,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 변량의 25%, 그리고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 변량의 16%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와 자녀의 외현화, 내면화 문제행동은 본 연구의 최종 모형에 의해서 잘 예측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모형 검증에는 어머니가 보고한 불안정 애착과 정서 그리고 자녀가 보고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문제행동을 분석하였다. 어머니가 보고한 불안정 애착과 정서가 어머니가 보고한 심리적 통제

표 1. 연구모형에서의 측정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잠재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측정변수													
모의 불안정 성인예측													
1 불안예측													
2 회피예측	.374**												
3 우울	.303**	.286**											
4 불안	.422**	.415**	.639**										
모의 심리적 통제													
5 표현 통제	.102*	.065	.120**	.110**									
6 인신공격	.071	.031	.100*	.070	.679**								
7 애정회피	.082	.055	.138**	.076	.704**	.677**							
가너 외현화 문제행동													
8 주의집중	-.024	.037	.108*	.074	.281**	.266**	.253**						
9 과잉행동	.041	.034	.104*	.123**	.333**	.251**	.298**	.585**					
10 공격성	.026	.017	.125**	.067	.380**	.330**	.386**	.227**	.414**				
내면화문제행동													
11 불안	.017	.065	.067	.075	.283**	.269**	.260**	.497**	.597**	.301**			
12 우울	.012	.055	.058	.063	.331**	.318**	.254**	.504**	.518**	.266**	.644**		
13 부러질감	-.005	.055	.079	.055	.263**	.259**	.216**	.643**	.508**	.228**	.589**	.722**	
평균	2.33	2.67	0.99	1.99	3.46	2.96	3.54	54.58	48.54	31.64	50.69	50.54	52.4
표준편차	0.54	0.42	0.99	0.48	1.15	0.91	1.05	10.99	9.31	8.06	10.47	9.35	10.35

* $p < .05$, ** $p < .01$, *** $p < .001$

표 2.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χ^2/df	AGFI	CFI	GFI	NEI	RMSEA
실정모형	265.289	79	.001	3.358	.911	.952	.941	.933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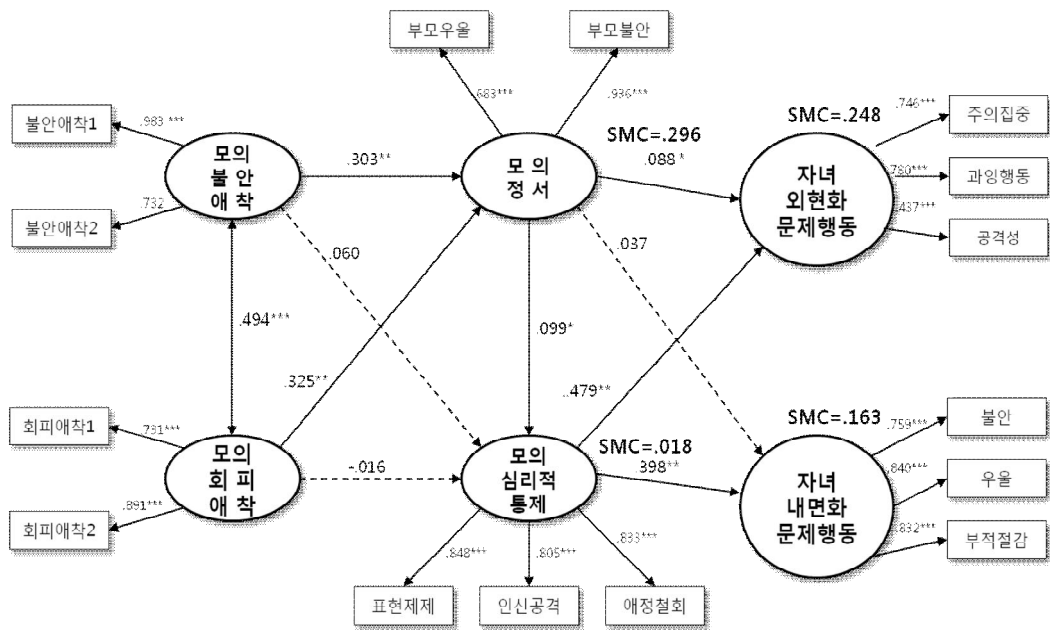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애착, 정서, 심리적 통제,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표 3. 연구모형의 구조경로 값

준거변인	예언변인	원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Standardized)	고정지수 (t-value)	다중상관 계급 (SMC)
모의정서					
	불안애착	.193 (.035)	.303	5.517**	.296
	회피애착	.291 (.053)	.325	5.483**	
모의 심리적 통제					
	불안애착	.107 (.100)	.060	1.068	
	회피애착	-.016 (.154)	-.006	-.104	
	모의정서	.274 (.164)	.099	1.672*	.018
외현화 문제행동					
	모의정서	2.716 (1.473)	.088	1.844*	
	모의 심리적 통제	5.339 (.589)	.479	9.066**	.248
내면화 문제행동					
	모의정서	1.103 (1.364)	.037	.808	
	모의 심리적 통제	4.298 (.537)	.398	8.006**	.163

주, 일방검증, *p<.05, **p<.01, ***p<.001

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자녀가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신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데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공식에는 자녀보고를 활용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민감성을 저해하는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와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본인의 우울증상과 상태불안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이 우울증(권정혜, 2002;)과 불안(한상희, 2005)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 불안애착은 우울을 유발(김정란, 이은희, 2007)하는 요인으로 빈번하게 거론되나 회피애착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는 일관적이지 않다(Mikulincer & Shaver, 200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증가할수록 우울과 불안수준이 모두 상승하였다. 따라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하위유형에 상관없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정서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Cassidy & Kobak, 1988; Fonagy 외, 2002). 본 연구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상태가 아동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애착유형을 파악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유형이 불안정 애착으로 진단되었다면 부부 간의 심리적 역동과 갈등해소 전략에 대해 탐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은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본인의 우울과 불안을 가중시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가 보고한 배우자와의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이에 대한 집착 혹은 의식적 회피가 증가할수록 자신의 전반적인 우울감, 자괴감 혹은 부정적인 자아상과 일반적인 상태불안도 높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한 부정적 정서증상이 높을수록 자녀의 감정표현과 언행을 자기 임의대로 억압 혹은 제지하는 행동, 불안정한 정서 행동, 인신공격, 혹은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로 애정철회나 죄의식을 심어주는 심리적 공격이 모두 심화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불안정 애착이 부모-자녀 관계의 부정적 심리적 역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방어적 책략이 도전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론적 주장(Levy, Blatt, & Shaver, 1988; Shaver & Mikulincer, 2002; Mikulincer 외 2009)을 지지한다. 이는 또한 부모의 부정적 대상관계 표상과 정서 상태가 자녀의 양육적 욕구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을 저해하여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인 심리적 역동으로 전이된다는 주장(Belsky, 1984; Cassidy & Shaver, 2008; Deklyen & Greenberg, 2008; Mikulincer 외, 2009)을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정신 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어머니들의 경우도 부정적 정서증상이 심화될수록, 잠재된 애착 관련 사고와 감정이 자녀

에 대한 태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애정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과도하게 집착한다고 보고할수록 불안정한 정서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자녀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과도한 미안함을 느끼게 하여 괴롭히는 수동 공격적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는 회피애착이 높아지는 경우 또한 자녀와의 훈육과정에서 자기 기준을 고수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을 때 비난이나 질책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이 심화된다는 선행연구결과(Downey, Coyne, 1990; Shaver & Mikulincer, 2011; Toth, Harris, Goodman, & Capazza, 2011)와 맥을 같이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의 하위유형과 부모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탐색을 통해 본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상담 장면에서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회피유형으로 추측되는 경우 특히 그렇다. 회피애착의 방어적 대처양식을 감안하여 면접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 서술보다는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이나 자녀의 훈육방법에 대한 기준의 현실성에 주목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어머니의 훈육적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단호한 경우 본인의 태도나 처벌기준에 대한 통찰과 자녀에 대한 공감을 증대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가

중시함으로써 내면화 문제행동에도 유의미한 간접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정상 집단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감이 가중되면 자신의 공격성도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의집중과 과잉행동으로 평가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 즉, 타인에게 불편감을 주는 정도의 방해적 행동도 증가하였다. 이는 임상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어머니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의 자녀들 보다 일반적인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이 많다는 기존 연구결과(Deklyen & Greenberg, 2008; Trentacosa & Shaw, 2008; Woods외, 2003)가 정상범위의 어머니와 아동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증상은 자녀에 대한 심리적 괴롭힘을 가중시켜 간접적으로 자녀의 우울감, 심리적 부적절감, 그리고 불안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왔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 대한 침해적, 공격적 행동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이 가중될수록 자녀에 대한 심리적 공격 역시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자녀의 일반적인 불행감, 무기력감,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심리적 부적절감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정서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으로 세대 간 전수가 이어지는 과정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유의미하게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보고한 자신의 불안정애착과 부정적 정서가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예측하였기에 그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정적 정서가 모가 지각하는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넷째, 부모 심리적 통제는 특히 자녀의 불안, 우울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관적(Deklyn & Greenberg, 2008; Shaver & Mikulincer, 2002; Mikulincer & Shaver, 2008; Mikulincer 외 2009)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 불안, 그리고 부적절감으로 평가한 내면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외현화 문제행동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아동의 관계적, 신체적, 그리고 반응성 공격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공격성향이 높았다. 사람들에게 고집이 세다고 보이거나 다른 사람을 헐방 놓는 행동으로 측정한 과잉행동 역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집중력이 짧다고 느끼거나, 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거나, 주의집중을 하지 않아 야단을 맞는 등의 어려움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왔다. 본 결과는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관계적, 신체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온 관련연구(Casas, Weigel, Crick, Ostrov, Woods, Jansen Yeh & Huddleston-Casas, 2006)와 맥을 같이한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심리적 괴롭힘이 자녀의 전반적인 심리적 불편감을 야기한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경로 구조모형 검증결과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불안과 회피애착은 자신의 우울과 불안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가중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는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심화시켜 자녀의 부적응에 기여하는 매개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불안정 성인애착이 정서를 매개로 자녀와의 부정적 심리적 역동을 초래하는 심리적 통제로

표현되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과정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역기능적 대인 관계 양상과 부정적 정서 상태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재현되어 궁극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자녀의 문제행동 유형별 차이가 있는지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부모 특성과 양육태도를 잇는 경로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기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하위변인들의 효과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별로 부모요인들의 구체적인 영향력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 론

상당 장면에서는 어머니의 일반적인 대인 관계 양상과 부정적 정서증상이 아동 문제행동과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와 같은 임상적 관찰과 관련 경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민감성을 저해하는 부모의 불안정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신의 부정적 정서와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그 부정적 영향이 이어지는 이론적 경로구조를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을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학령기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이 자녀의 외현화,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 그리고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적 민감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간의 구체적 관련성을 밝혀 상담 장면에서 사례의 개념화와 개입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존하였고 특히 어머니의 성인애착에 대해 배우자인 아버지의 평가를 활용하지 못한 제한점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녀문제행동을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여 부모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였기에 후속연구에서 문제유형의 하위요인별 탐색을 이어가야 하겠다. 부모의 부정적 정서가 자녀와의 부정적 심리적 역동에 기여하는 구체적 과정, 특히 애착 관련 정서의 활성화, 각성수준, 그리고 방어적 전략을 매개하는 각각의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애착 관련 정서체험에 대한 마음화(mentalization)(Fonagey, 2002)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배우자와의 불안정 애착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 중 배우자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양상과 부모-자녀 간의 갈등해결 양식의 유사성을 밝혀 성인애착의 세대 간 전수의 이해를 좀 더 탐색하는 것도 좋겠다.

참고문헌

권정혜 (2002). 우울증 환자의 역기능적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95-607.
 김정란, 이은희 (2007). 중년여성의 불안정 애

착이 본인의 우울수준 및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갈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97-319.
 김청택 (1978) 한국판 상태불안척도
 박성연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 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Bart Soenens (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신의진, 이경숙, 정석진, 홍현주 (2003). 한국에 착장에 아동의 발달 및 임상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55-174.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안명희 (2005). 한국판 아동표준행동진단검사. 한국심리검사연구소.
 한상희 (2005).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대인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서울여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Adam, E. K., Gunnar, Megan, R., & Tanaka, A. (2004). Adult attachment, parent emotion, and observed parenting behavior: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Child Development*, 75(1), 110-122.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Barber, B., & Harmon, E., L. (2002). Violating

-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arber, B, (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lsky, J. (1984). Determinants of parenting.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A. Simpson & W.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Casas, J. F., Weigel, S. M., Crick, N. R., Ostrov, J. M., Woods, K. E., Jansen Yeh, E. A., & Huddleston-Casas, C. A. (2006). Early parenting and children's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the preschool and home context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09-227.
- Cassidy, J., & Kobak, R. R. (1988). Avoida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defensive processes.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300-323), Hillsdale, NJ: Erlbaum.
- Cassidy, J., & Berlin, L. J. (1994). The insecure/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971-981.
- Cassidy, J., & Shaver, P. R. (Eds.). (2008).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Deklyen, M., & Greenberg, M. (2008).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in childhood,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637-665). New York: Guilford.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3-25.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NY. Other press.
- Kobak, R. (1999). The emotional dynamics of disruption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ntervention.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21-43). New York: Guilford.
- Levy, K. N., Blatt, S. J. & Shaver, P. R. (1998). Attachment Styles and Parental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4, No. 2, 407-419.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561-592.
- McWilliams, N. (2004).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8). Adult attachment and affect regulation.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503-531). New York: Guilford.

- Mikulincer, M., Shaver, P., Cassidy, J., & Berant (2009). Attachment-related defensive processes in Obegi, J. H. & Beranrm E. (eds.) *Attachment theory and clinical work with adults* (pp.293-327). New York: Guilford Press.
- Olsen, S. F., Yang, C., Craig, H. H., Robinson, C. C., Peixia W., Nelson, D., Nelson, J., Jin, Shenghua, & Wo, J. (2002),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al Outcomes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Baber, B, (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apee, R. M. & Spence, S. H. (2004).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empirical evidence and an initial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737-767.
- Shaver, P. R., Belsky, J., & Brennan, K. A. (2000).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nd self-reports of romantic attachment: Associations across domains and methods. *Personal Relationships*. 7, 25-43.
- Shaver, P. R. & Mikuling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vol 4, No.2. 133-161.
- Shaver, P. R., Segev, M., Mikluncer, M., (2011). A behavioral systems perspective on power and aggression. In Shaver, P. R. & Mikulincer, M. (Eds.) *Human aggression and violence*. (pp. 71-8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igel, L., McGillicuddy-DeLisi, A., & Goodnow, J.(Eds.),(1992).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Second Edition. New Jersey: Erlbaum.
- Soenens, B.,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 Goossens, L. (2005). *Psychological control and perfectionism*.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and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Toth, S. I., Harris, L. S., Goodman, G. S., & Capezza, N. (2011). Influence of violence and aggression on children's psychological development: trauma, attachment, and memory In Shaver, P. R. & Mikulincer, M. (Eds.) *Human aggression and violence*. (pp.351-36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reffers, D. A., & Silverman, W. K. (2001). Anxiety and its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efore the twentieth century. In W.K. Silverman & Treffers(Eds.). *Anxiety and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Research, assessman, and intervention* (pp.1-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entacosra, C. J. & Shaw, D. S (2008). Maternal predictors of rejecting parenting and early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2), 247-259.
- Wachtel, E. F. (1994). *Treating troubl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New York: Guilford Press.
- Wei, M., Vogel, D. L., Ku, T.-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4-24.

- Wood, J. J., Mcleod, B. D., Sigman, M. Hwang,
W. C., Chu, B. C. (2003). Parenting and
childhood anxiety: theory, empirical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1). 134-151.
- Wood, J. J. (2006). Parental intrusiveness and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in a clinical
sample, *Clinical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 73-87.

1차원고접수 : 2010. 10. 10.

최종게재결정 : 2010. 12. 08.

Maternal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child behavior problem: mediating role of maternal emotion and psychological control

Christine Myunghee Ah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pathway of influence among maternal insecure adult attachment, emotion,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 psychological adjustment. Maternal reports of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state anxiety and depression, as well as child repor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were analyse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cluded aggression, hyperactivity, and attention problem while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ere measured in terms of anxiety, depression, and sense of self-inadequacy.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a sample of 569 mothers and their school age children using the SPSS 17.0 and AMOS 17.0. Results from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maternal insecure adult attachment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evel of maternal anxiety and depression. Maternal anxiety and depression, in tur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child repor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which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both chil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Maternal emotion in terms of anxiety and depression was also a significant independent predictor of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Results from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with regard to relevant findings in the extent literature. Limitations of the current findings as well as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included.

Key words : insecure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xiety,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child behavior problem